제4강 우리 집 생활단학 Ⅱ

(1교시)

제가 요즘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촌 컨설턴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구요. 요즘 제게 농촌에 와서 살집과 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자그만치 네 가정이나 됩니다. 이들의 부탁은 단지 싸고 좋은 땅을 구해달라는 말이지만 저는 땅뿐만이 아니라 아예 농촌생활에 대한 종합컨설턴트를 해줍니다.

농촌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도시생활을 접고 휴양하듯 와서 살면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휴양위주의 장소를 구하고 집을 짓고 생활준비를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개념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으로 농촌에 오면 적응하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도 생활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건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놀기도 해야 하고 집도 고치고 농사도 짓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모든 것을 해야 생활이 되지요.
그런데 대개의 도시인이 농촌에 자리를 잡을 때는 계곡에 외따로 떨어진 곳을 택합니다. 별장이나 휴양지 같은 곳에 멋있는 집을 짓고 살아가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촌에 온 사람들 중에는 대개가 적응을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립고 생활이 안 되고 적막하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농촌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장소선택에서 집짓고 농사짓고 생활하는 것까지 종합컨설턴트를 해주고 있지요. 일종의 귀농운동본부지요.

집안을 밝고 환하게 하는 방법이 많은 듯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설날 같은 명절이면 윷놀이를 한다던가 함께 스포츠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어떤 것을 하기도 매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나이에 따른 세대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문화와 사고차이가 한 지붕아래 함께 사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핵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말마저도 사라지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우리 집의 경우에도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대화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시각을 맞추면 대화도 가능하고 같이 놀 거리도 많지만 나의 눈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결코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경우가 그렇지요. 아내는 아이들의 시각을 갖지 않고 그들의 문화나 이야기 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아이들과는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활발하고 서로 존중해야할 부모 자식간에 벽을 쌓고 지내는 것이지요.

[실습]

www.artnstudy.com

a. 얼굴도 맑게 눈도 밝게 하는 기 세수
b. 당당한 자세 만들기
  - 무릎 꿇기
  - 허리비비기
  - 뒷짐 지고 가슴 내밀기
  - 죽비로 어깨 두드리기

[시범]
창의력을 위한 기체조

www.artnstudy.com